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中 선전서 기업 전북 투자 유인

전북자치도, 중국 첨단분야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바이오 기업 시노메드 등
2개 기업과 협약 체결

글로벌 기업 화웨이 방문
모빌리티 분야 투자 제안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6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선전시 상그릴라호텔에서 중국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전북-선전 투자촉진협력교류회를 열고 전북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국에서 이차전지, ESS 등 에너지 첨단 분야와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북 투자를 유인하는 등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공의교 활동 등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단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6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시에서 세계 1위 휴대폰 배터리 제조사인 '신왕다 사의' '진승진 총경리(사장)', 이차전지 관련 3개 주요 협회장 등 50여 개 기업 및 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선전은 지난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돼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화웨이, 텐센트, DJI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GEM, BYD를 비롯한 중국 전체 리튬배터리 상장사 총 139개사 중 21개사가 소재한 지역이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이차전지 음극재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인 BTR 사, 중국 전력기업 중 최초로 상장된 발전 분야 공기기업인 선전에너지 등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지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과 새만금 개발 현황을 직접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전북과 선전시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북에서 특별한 기회를 만들자"며 "적극적인 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중국 선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과 투자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협약체결 기업은 2007년 설립 후 2019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심장 및 혈관질환 제약사로 유명한 시노메드 社와 모더나 등 주로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Samech Life' 등 2개 기업이다.

김관영 도지사 등 대표단은 7일 오전 새만금에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 임원들과 조찬을 같이 하며, 구체적인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간담회 후에는 고속 전기 충전소, 화웨이 등을 방문하며 숨겨진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화웨이는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로 김관영 도지사는 화웨이 임원들에게 전북 투자를 적극 타진하기도 했다.

전시 기업인이 전북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업 투자는 물론 미래기술 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중국과 투자유치 설명회 및 중국 이주경제 발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장수성에서 도립미술관 소장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와 문화교류 등을 위해 6일 새벽 중국 선전으로 출국해 선전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베이징과 난징, 장수성을 거쳐 오는 9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투자유치와 문화교류로 검색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액 채납자들과 전면전'

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징수활동 펼쳐
도내 각 시·군 채납 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채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시·군 채납 담당자들과 연계해 채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도 지방세 이월채납액 1,103억(2024년 1월 초 기준) 징수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채납 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채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다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상반기 채납액 일제 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채납자 방문 납부 독려, 음주단속 연계 채납 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도 채납징수반은 고액채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 채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주요활동으로는 100만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또한 500만원 이상 채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채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한다.

1,000만원 이상 채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원 이상 채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000만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 4월 16일부터 14개 시·군의 상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채납자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이체를 통한 징수와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전주시, 지하침하 사고 선제대응

지표투과 레이더 활용

전주시가 지반침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지표투과 레이더를 적극 활용한다.

시는 방수 공동(空間)을 사전에 발견하고 복구 할 수 있어 싱크홀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 도시숲 32ha 조성

전북자치도, 올해 348억 투입... 생활환경 생태계 개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으로 도심 내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도시바람길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한 자녀안심그린숲 △도시권역 산림식생의 복원과 도민의 보건 휴양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한 도시숲은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를 35.7g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2.5톤 흡수, 산소는 1.8톤을 방출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대기정화 기능이 있다.

IMSIL-GUN
임실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